



보도자료

2025.5.16(금)

최운상 빛의혁명시민본부 팀장(010 7374 4899)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TV’ 드디어 개국

메인 MC 서승만 ... 첫 게스트로 성준후 상근부분부장 출연

선대위 산하조직에 ‘빛의혁명’ 명명하게 된 배경 소개

6·3 투표일 전까지 총 9회 방송하며 이재명 알리는데 전력 방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빛의혁명시민본부’가 5월 15일(수) 유튜브 TV를 개국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여정을 본격화했다.

‘빛의혁명 TV’로 명명된 이 유튜브 채널은 이날 오후 8시 메인 MC인 코미디언 서승만의 사회로 실시간 첫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 시민사회 소통과 노동계 연대를 통한 이재명 후보를 알리기에 주력했다.

이날 개국방송의 첫 게스트로는 ‘빛의혁명시민본부’ 실무진을 이끌고 있는 성준후 상근 부분부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 등 3명이 출연했다.

성준후 부분부장은 ‘빛의혁명시민본부’를 소개하면서 선대위 산하 기구에 ‘빛의혁명’이라는 이름을 넣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 관심을 모았다.

성 부분부장은 또 12·3 계엄 당시 군인들의 진입을 설득으로 막아낸 707특임단 이관훈 씨와 계엄 사태 이후 10년간 운영해온 카페를 폐업하고도 시민의 목소리를 낸 이금순 씨, 한겨울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키세스 담요’를 두른 채 광장을 지킨 하주미 씨 등 3명을 시민대변인으로 위촉하게 된 과정과 그 후일담도 털어놓았다.

‘빛의혁명시민본부 TV’는 투표일 직전인 6월 2일(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같은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세울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빛의혁명시민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정동영·이학영 공동본부장, 시민과 노동계 인사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회의를 열어 광장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사회·노동계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의 동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끝/

5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빛의혁명시민본부TV**
첫·방·송

  **진짜. 대한민국!**
지금운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빛의혁명 시민본부와 함께 만듭시다!

진행자		게스트	
			
안진걸	서승만	오동현	성준후

빛의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정동영** 본부장,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빛의 혁명 시민본부